

NEW

ETF Line-up

삼성, 미래에셋, 신한자산운용 ETF 5종목 상장

6월 3주차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글로벌 ETF 김진영 jykim@kiwoom.com
 RA 조호준 hojun.cho@kiwoom.com



☒ New ETF 개요

상장 개요

‘25.6.17(화) 국내 증시에 ETF 5종목 신규 상장

상품 요약

▲ KODEX 차이나테크TOP10 (0065GO)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중국 및 홍콩 상장 기업 중 **기술 관련 산업에 속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

▲ TIGER 차이나AI소프트웨어 (0067Y0)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중국 및 홍콩 상장 기업 중 **AI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시가총액 상위 15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

▲ TIGER 차이나글로벌리더스TOP3+ (0067V0)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중국 및 홍콩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3종목(알리바바·샤오미·BYD)에 20%씩, 나머지 7종목에 40%를 동일비중으로 투자하는 ETF

▲ KODEX 금액티브 (0064K0)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한 **미국상장 금현물 ETF**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액티브** ETF. LBMA가 발표하는 국제 금현물 가격을 비교지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표준 금 시장에서 투자 시 발생 가능한 가격 불투명성 및 거래 불안정성 해소 가능

▲ SOL 국제금 (0066W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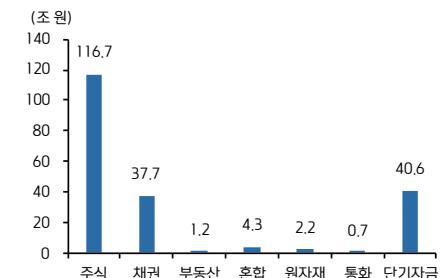
신한자산운용에서 출시한 **미국과 캐나다에 상장된 금현물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패시브** ETF. 등 ETF 역시 글로벌 표준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해 지역 프리미엄 리스크에서 자유로움

ETF 시장 Snapshot

구분	'25.06.06~06.13	'25.05.30~06.06
상장 종목 수	986 개 (▼3 개)	989 개
순자산 총액	203.3 조 원 (▲1.4 조)	201.9 조 원
총 거래량	35.7 억 주 (▲19.6 억)	16.1 억 주
총 거래대금	26.6 조 원 (▲14.2 조)	12.4 조 원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06.13 기준

국내 ETF 유형별 순자산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06.13 기준

신규 출시 ETF 개요(1)

구분	KODEX 차이나테크 TOP10	TIGER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TIGER 차이나글로벌리더스 TOP3+
코드	0065G0	0067Y0	0067V0
상품 유형	주식	주식	주식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기초(비교)지수	Hang Seng China Tech Top 10 Select Index (HKD)	Mirae Asset China AI Software Index (HKD)	Solactive-KEDI 차이나 글로벌리더스 TOP3 플러스 지수 (CNH)
복제방법	실물(파시브)	실물(파시브)	실물(파시브)
총보수 (운용보수)	0.45% (0.414%)	0.49% (0.439%)	0.49% (0.439%)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구성종목 수	10 종목	15 종목	10 종목
정기 변경	연 4 회(3, 6, 9, 12 월)	연 4 회(3, 6, 9, 12 월)	연 4 회(1, 4, 7, 10 월)

자료: KRX,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신규 출시 ETF 개요(2)

구분	KODEX 금액티브	SOL 국제금
코드	0064K0	0066W0
상품 유형	금-파생재간접형	금-재간접형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기초(비교)지수	Bloomberg Gold Spot NY 4pm USD Index	KEDI 국제금현물 ETF 가격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실물(파시브)
총보수 (운용보수)	0.30% (0.26%)	0.30% (0.25%)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구성종목 수	-	10 종목
정기 변경	-	연 4 회(3, 6, 9, 12 월)

자료: KRX,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 신규 출시 ETF 한 눈에 보기

ETF 명 (코드)	KODEX 차이나테크TOP10 (0065G0)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및 홍콩 상장 기업 중 기술 관련 산업에 속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정부의 지원이 기대되는 10종목에 투자하되 BIG5에 70% 집중 투자. 시장 주도주와 구조적 성장 전반에 투자 																						
기초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ng Seng China Tech Top 10 Select Index (HKD) (Price Return) 																						
유니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ng Seng Composite Large Cap Index 또는 Hang Seng Stock Connect China A300 Index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또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 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2천만 CNY 이상(중국 상장) 또는 2천만 HKD 이상(홍콩 상장) 중국 상장 종목의 경우, 해외투자자 비중 24% 이하(기준 구성종목의 경우 26% 이하) HSICS(항생산업분류) 하위산업분류상 기술 관련 항목에 해당 																						
투자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이나테크 BIG5에 70% 투자: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메이퇀, BYD의 차이나테크 BIG5에 70% 수준으로 집중하여 승자독식 구간에서 수혜 극대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25년 사상 최대 규모의 설비투자를 예고한 만큼, 정부와 발맞춰 첨단기술 고도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표명한 상태. 중국의 생성형 AI 특히 점유율은 글로벌 1위로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성장하며 AI 굴기 성과 가시화 단계 내수 활성화 기대에 따른 첨단 테크 & 이커머스 수혜 전망: 2025년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 강화로 통신기기, 가전 등 판매량 증가 중이며(샤오미, BYD, SMIC 등), 판매 채널인 AI 플랫폼/이커머스 기업까지 (징동닷컴, 쿄이쇼우 등) 호실적 기대. '24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며 내수 및 소비 회복 기대 확대 중 중국 정부 지원 집중되는 종목: 중국 정부의 AI 기술 고도화 및 내수 소비 부양이라는 큰 틀의 지원에 집중하여 중국 정부와 시장에서 검증된 10개 테크 기업에 투자. AI 고도화와 상용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가격경쟁력과 정부지원을 뒤에 업고 내수 소비를 부양, 결과적으로 기업 매출 증대 및 투자 확대되는 사이클로 연결될 가능성 																						
참고자료	<p>중국 정부와 시장이 동시에 Pick한 차이나테크 TOP10</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Tencent</td> <td>16.2%</td> </tr> <tr> <td>Alibaba</td> <td>16.1%</td> </tr> <tr> <td>Meituan</td> <td>14.0%</td> </tr> <tr> <td>BYD</td> <td>12.9%</td> </tr> <tr> <td>JD.COM</td> <td>12.1%</td> </tr> <tr> <td>SMIC</td> <td>8.1%</td> </tr> <tr> <td>Kaishou</td> <td>6.2%</td> </tr> <tr> <td>NetEase</td> <td>5.7%</td> </tr> <tr> <td>Baidu</td> <td>4.7%</td> </tr> <tr> <td>Bilibili</td> <td>4.1%</td> </tr> </tbody> </table> <p>자료: 삼성자산운용, 주) 2025. 5월 말 기준</p>	기업	비중	Tencent	16.2%	Alibaba	16.1%	Meituan	14.0%	BYD	12.9%	JD.COM	12.1%	SMIC	8.1%	Kaishou	6.2%	NetEase	5.7%	Baidu	4.7%	Bilibili	4.1%
기업	비중																						
Tencent	16.2%																						
Alibaba	16.1%																						
Meituan	14.0%																						
BYD	12.9%																						
JD.COM	12.1%																						
SMIC	8.1%																						
Kaishou	6.2%																						
NetEase	5.7%																						
Baidu	4.7%																						
Bilibili	4.1%																						

ETF 명 (코드)	TIGER 차이나AI소프트웨어 (0067Y0)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홍콩 상장 기업 중 AI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하는 ETF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모델, AI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세가지 테마 중 적어도 하나에 속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 15개에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활용하여 투자
기초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rae Asset China AI Software Index (Price Return, HKD)
유니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소재지가 중국 또는 홍콩이며, 상장 거래소는 중국, 홍콩 또는 미국거래소(중국 상장 종목은 홍콩에서도 거래 가능한 종목으로 한정하며, 복수거래소 상장시 홍콩 상장 종목으로 선정) - 주요 매출이 중국 또는 홍콩에서 발생할 경우, 본사 소재지가 중국 또는 홍콩이 아니더라도 일부 국가에 한정하여 편입 가능 - 시가총액 50억 HKD 이상, 6개월 평균 거래대금 250만 HKD 이상(기준 구성종목의 경우 시가총액 40억 HKD, 6개월 평균 거래대금 200만 HKD 이상) - 선정일 직전 6개월 동안의 전체 영업일 중 90% 이상 기간 동안 거래 존재(거래이력 6개월 미만인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 후 10영업일 경과 시 대상 포함) - GICS 분류상 AI 소프트웨어 관련 하위산업분류에 속하는 종목
투자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딥시크(DeepSeek)의 AI 소프트웨어 시대 개막: 딥시크로 인해 AI 모델 가격이 혁신적으로 저렴해지며 AI 탑재가 확산 중. 풍부한 사용자층, 독점적인 개인화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AI 소프트웨어 업체의 밸류에이션은 미국 빅테크와 대비하면 낮은 수준. 이후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개인 및 기업 사용자의 지출로 연결된다면 수익화로 이어질 전망 ▶ 중국의 강력한 AI 육성 정책과 소프트웨어 역량: 중국은 정부 주도의 장기 AI 로드맵과 산업별 통합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리스크는 낮추며, 민간 기업의 상용화 속도를 가속화. 방대한 인구 기반과 슈퍼 앱(Super App)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정부의 육성 정책이 만나며 중국은 인프라부터 응용까지 이어지는 AI 밸류체인을 독자적으로 구축 ▶ AI 보편화로 찾아올 클라우드 성장 사이클: 중국 내 10억명의 AI 연산 요청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은 집중적인 수혜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특히 GPU 클라우드 자원이 1)미국의 수출제한, 2)중국 내 수요 급증으로 수요 대비 희소한 상황. 따라서 스케일과 자원 조달력을 갖춘 Top 클라우드 사업자의 IaaS, PaaS 부문 수요가 집중될 것
참고자료	<p style="color: #0070C0; font-weight: bold;">중국의 AI 밸류체인 생태계</p> <pre> graph TD subgraph Infrastructure [인프라] IC[반도체 • SMIC • Cambricon] DS[데이터센터 • IEIT Sys • Dawning Info] T[전력 • Envicool Tech • WeiChai Power] end subgraph Platforms [플랫폼] PM[AI 모델 • Tencent • Alibaba] C[클라우드 • Kingdee • Sangfor] end subgraph Applications [응용 - AI Agent] AS[앱&서비스 • Kingssoft • Sensetime] PA[자율주행 • BYD • Pony AI] RS[로보틱스 • UBTECH • INOVANCE] end IC --> PM DS --> PM T --> PM PM --> C C --> AS AS --> PA AS --> RS style C fill:#f08040,color:#fff style AS fill:#f08040,color:#fff style PA fill:#f08040,color:#fff style RS fill:#f08040,color:#fff </pre> <p style="text-align: center;">“TIGER 차이나AI소프트웨어”</p> <p>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p>

ETF 명 (코드)	TIGER 차이나글로벌리더스TOP3+ (0067V0)																																	
개요	- 중국 및 홍콩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기업 10개에 투자하는 ETF																																	
특징	- 시가총액 상위 3종목에 60%(동일가중)을 투자하고, 나머지 7종목에 40%(동일가중) 투자																																	
기초지수	- Solactive-KEDI 차이나글로벌리더스TOP3플러스 지수 (Price Return, CNH)																																	
유니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소재지가 중국, 홍콩 또는 케이만 제도이며, 상장 거래소는 중국 또는 홍콩거래소 -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 및 시가총액 10억 USD 이상 - RBICS 하위산업분류상 'Alternative Energy Car Manufacturers', 'Chassis & Body Manufacturing', 'Electric Vehicle Batteries Manufacturing', 'Flash Memory Semiconductors', 'General Factory Automation Makers', '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Products', 'Hematological Oncology Biopharmaceuticals', 'Image Sensor & Image Capture Semiconductors', 'Internet Department Stores', 'Mixed Module & Subassembly Electronic Components', 'Other Front End Processing Equipment Makers', 'Other Memory Semiconductors', 'Productivity Software', 'Semiconductor Foundry Services', 'Smart Phone Manufacturing', 'Valves & Fluid Control Products'에 속하는 종목 																																	
투자포인트	<p>▶ 중국의 글로벌 리더 기업 성장 스토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계를 무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아 옴. 중국 역시 적극적인 기술 투자를 바탕으로 AI, IT,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성장 스토리가 중국에서 적용될 가능성 증가 중. AI,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 성과는 중국과 미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아직 미국 M7 대비 저평가 상태</p> <p>▶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 대표 기업에 집중투자: AI 모델부터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중국의 AI 대표주자로 알려진 '알리바바', 스마트폰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중국 대표 IT 하드웨어 기업 '샤오미', 수직계열화와 기술력으로 글로벌 전기차 매출 1위를 달성한 전기차 기업 'BYD'에 각각 20%씩 투자</p> <p>▶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정책 방향성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1)글로벌 수출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들을 편입하여 반도체, 스마트폰 등 고도화되는 중국의 수출 산업 특징을 반영. 또한 2)정책 수혜 가능성성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제조, IT, 소재, 바이오 중심의 첨단기술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p>																																	
참고자료	<p>미국 빅테크 M7 vs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TOP3 P/E 비교</p> <table border="1"> <caption>미국 빅테크 M7 vs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TOP3 P/E 비교</caption> <thead> <tr> <th>기업</th> <th>2025E P/E</th> <th>2026E P/E</th> </tr> </thead> <tbody> <tr> <td>애플</td> <td>~28.0</td> <td>~26.0</td> </tr> <tr> <td>구글</td> <td>~17.0</td> <td>~16.0</td> </tr> <tr> <td>테슬라</td> <td>~34.0</td> <td>~42.0</td> </tr> <tr> <td>엔비디아</td> <td>~32.0</td> <td>~25.0</td> </tr> <tr> <td>MS</td> <td>~30.0</td> <td>~25.0</td> </tr> <tr> <td>아마존</td> <td>~30.0</td> <td>~25.0</td> </tr> <tr> <td>메타</td> <td>~22.0</td> <td>~20.0</td> </tr> <tr> <td>알리바바</td> <td>~32.0</td> <td>~33.0</td> </tr> <tr> <td>샤오미</td> <td>~12.0</td> <td>~23.0</td> </tr> <tr> <td>BYD</td> <td>~22.0</td> <td>~16.0</td> </tr> </tbody> </table> <p>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Bloomberg 주) 2025.5.29 기준</p>	기업	2025E P/E	2026E P/E	애플	~28.0	~26.0	구글	~17.0	~16.0	테슬라	~34.0	~42.0	엔비디아	~32.0	~25.0	MS	~30.0	~25.0	아마존	~30.0	~25.0	메타	~22.0	~20.0	알리바바	~32.0	~33.0	샤오미	~12.0	~23.0	BYD	~22.0	~16.0
기업	2025E P/E	2026E P/E																																
애플	~28.0	~26.0																																
구글	~17.0	~16.0																																
테슬라	~34.0	~42.0																																
엔비디아	~32.0	~25.0																																
MS	~30.0	~25.0																																
아마존	~30.0	~25.0																																
메타	~22.0	~20.0																																
알리바바	~32.0	~33.0																																
샤오미	~12.0	~23.0																																
BYD	~22.0	~16.0																																

ETF 명 (코드)	KODEX 금액티브 (0064K0)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금현물 가격을 비교지수로 하여 미국상장 금현물 ETF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액티브 ETF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금 시세 추종 상품에 투자하여 지역 프리미엄에 따른 손실 없이 안정적 투자 가능. 액티브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금 투자 비용 최적화 및 금 관련 금융상품 등을 모니터링하여 초과 수익 추구
비교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Bloomberg Gold Spot NY 4pm USD Index <p>*글로벌 금현물(Gold Spot) 실시간 가격인 블룸버그 표시 금현물 가격(XAU/USD)으로 산출되며, 종가는 뉴욕시간 16:00 시점에 결정됨</p>
투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가능 시장(미국, UCITS 등)에 상장
ETF P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편입물로 국제 금현물(LBMA)을 100% 복제 가능 순자산 \$100mn 이상 대표 금 현물 ETF인 GLD, GLDM, IAU, IAUM, SGOL, AAAU가 투자 대상 ETF 풀에 존재 ('25.3.21 기준)
투자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자산의 표준 '금'을 국제 표준으로 투자: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분쟁 등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대표 투자처로 떠오르는 안전자산의 대표 '금'. LBMA(런던 금 시장 협회)가 발표하는 국제 금 가격은 국제 금 관련 상품의 벤치마크로 활용 중. 국제 표준 기준으로 투자할 경우, 거래 가격의 투명성, 유동성 확보, 불필요한 매수 비용 절감 등의 효과 기대 가능. 세계 금 현물 ETF의 대부분은 LBMA 인증 금 현물에 100% 투자 김치프리미엄 걱정 없는 안정적인 국제 금 투자: 비표준 금 시장에서 투자 시 가격 불투명성, 거래 불안정성 발생 가능. LBMA 국제 금 표준 시세로 투자하여 지역 프리미엄으로 인한 거품 가격의 한계를 극복 가능 (KRX 금현물은 국제 표준 금 가격 대비 최대 20%까지 프리미엄 거래되는 경우 발생) 연금, ISA계좌에서 금을 담아 적립식 & 장기투자: 일반계좌 뿐만 아니라, 절세계좌에서 70%(DC, IRP) ~ 100%(연금저축계좌, ISA)까지 투자 가능하여 과세이연,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제 금 상품에 적립식 또는 장기투자가 가능
참고자료	<p>금 현물 투자 시, 지역 프리미엄에 따른 손실 발생 사례</p> <p>1) KRX 금 거래량</p> <p>2) KRX 금현물 및 국제 금 시세 추이</p> <p>※ 기간 : 2025.01.02 ~ 2025.05.08 ※ 자료 : KRX금현물 종가, USD/KRW 종가, 모닝스타 금 선물 종가, 삼성자산운용 ※ 국제 금 시세는 모닝스타 금 선물 가격의 원화 환산 시세</p> <p>자료: 삼성자산운용</p>

<p>ETF 명 (코드)</p> <p>SOL 국제금 (0066W0)</p>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캐나다에 상장된 금현물 ETF 10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패시브 ETF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표준가격인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여 한국 금 가격 프리미엄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며, 금 '현물' 추종 ETF에 투자하여 롤오버 영향에서도 자유로움 																														
<p>기초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I 국제금현물가격지수(PR) 																														
<p>유니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및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금현물 ETF 및 골드 선물(10% 이내) - 정기 변경일 기준 AUM 3,000만 달러 이상,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인 ETF - 종목선정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상위 10종목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상장 여부, 2)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3억원 이상 여부, 3) 총보수율, 4) AUM(보수가 동일한 경우 AUM 높은 종목이 상위) - 보유 현금은 단기 우량 국채/통안채, 콜, 예금, 단기채권 ETF 등으로 운용 																														
<p>투자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어나는 금에 대한 투자 수요와 중앙은행 수요: 투자(골드 바/코인)와 중앙은행 부문은 2024년 기준 글로벌 금의 각각 26%와 23%를 보유 중으로 글로벌 금 수요의 절반 가량을 차지. 글로벌 투자자 및 중앙은행의 금 수요는 장신구 수요 둔화 부담 압도 중이며, 금 가격 강세 사이클을 주도하는 원동력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따른 달러화 불신: 5월 17일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의 이슈로 미국 달러자산 지위에 대한 의구심 제기. 달러 패권은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에는 어느정도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2020년 이후 가속화 된 '외환보유고 다변화(脫달러) 차원의 중앙은행 금 매입 추세'를 주목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짐 ▶ 국제 금 현물 ETF 투자로 프리미엄, 롤오버 영향에서 자유로움: 글로벌 표준 가격인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여 한국의 금 가격 프리미엄 리스크 우려에서 자유롭고, 국제 금 현물 투자를 통해 선물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롤오버 영향에서도 자유롭게 투자 가능 																														
<p>참고자료</p> <p>글로벌 IB의 추가적인 금 가격 상승 전망의 확대</p> <table border="1"> <thead> <tr> <th>Period</th> <th>금 가격 전망(연평균)</th> <th>금 가격 전망(분기평균)</th> </tr> </thead> <tbody> <tr> <td>Spot</td> <td>3,125</td> <td>3,125</td> </tr> <tr> <td>Q2 25</td> <td>3,132</td> <td>3,132</td> </tr> <tr> <td>Q3 25</td> <td>3,172</td> <td>3,172</td> </tr> <tr> <td>Q4 25</td> <td>3,208</td> <td>3,208</td> </tr> <tr> <td>Q1 26</td> <td>3,243</td> <td>3,243</td> </tr> <tr> <td>2025</td> <td>3,111</td> <td>3,111</td> </tr> <tr> <td>2026</td> <td>3,291</td> <td>3,291</td> </tr> <tr> <td>2027</td> <td>3,424</td> <td>3,424</td> </tr> <tr> <td>2028</td> <td>3,542</td> <td>3,542</td> </tr> </tbody> </table> <p>※ 자료 : Bloomberg(2025.04.10 기준 글로벌 IB 회사들의 전망치 정리) * Spot 가격은 2025.04.10 floating 가격 기준</p> <p>자료: 신한자산운용, 주) 2025.4.10 기준</p>	Period	금 가격 전망(연평균)	금 가격 전망(분기평균)	Spot	3,125	3,125	Q2 25	3,132	3,132	Q3 25	3,172	3,172	Q4 25	3,208	3,208	Q1 26	3,243	3,243	2025	3,111	3,111	2026	3,291	3,291	2027	3,424	3,424	2028	3,542	3,542
Period	금 가격 전망(연평균)	금 가격 전망(분기평균)																												
Spot	3,125	3,125																												
Q2 25	3,132	3,132																												
Q3 25	3,172	3,172																												
Q4 25	3,208	3,208																												
Q1 26	3,243	3,243																												
2025	3,111	3,111																												
2026	3,291	3,291																												
2027	3,424	3,424																												
2028	3,542	3,542																												

국내 신규출시 ETF 리스트 (최근 1개월)

상장일	티커	ETF 명	운용자산 (억원)	개요
05/20	0051A0	KoAct 브로드컴밸류체인액티브	100	브로드컴 밸류체인 관련 핵심 기업들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05/20	0050E0	PLUS 미국 AI 에이전트	73	AI 에이전트와 관련도 높은 美 상장기업 15 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05/20	0051G0	SOL 미국원자력 SMR	980	미국 원자력과 SMR 산업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05/20	0052D0	TIGER 코리아베당다우존스	1,084	다우존스 미국배당 100 지수 전략을 한국 주식시장에 적용하여, 국내 고배당 30 종목에 투자하는 ETF
05/27	0052T0	1Q 중단기회사채(A-이상)액티브	250	전준만기 3 개월 초과 3 년 이하 신용등급 A- 이상인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05/27	0028X0	KODEX 미국금융테크액티브	205	핀테크, 디지털 뱅크, 디지털 페이 산업 등 차세대 금융테크 관련 미국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05/27	0053L0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448	중국·홍콩 상장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 20 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06/10	0052S0	1Q 미국 S&P500 미국채혼합 50 액티브	172	미국 S&P500 지수와 미국 단기국채로 구성된 주식+채권 혼합형 ETF
06/10	0057H0	PLUS 미국 S&P500 미국채혼합 50 액티브	81	미국 S&P500 지수와 미국 초단기국채로 구성된 주식+채권 혼합형 ETF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06.13 기준

국내 ETF 기초자산 유형별 Snapshot (주간)

구분	상장 종목 수	순자산 총액	일평균 거래량
주식	705 개 (▼3 개)	116.7 조 원 (▲9,026 억)	6.8 억 주 (▲1.7 억)
채권	140 개 (0)	37.7 조 원 (▲2,651 억)	1277 만 주 (▲148.1 만)
부동산	11 개 (▼2 개)	1.2 조 원 (▲286.8 억)	428 만 주 (▲53.5 만)
혼합	57 개 (▲2 개)	4.3 조 원 (▲946.2 억)	444.5 만 주 (▲83.3 만)
원자재	25 개 (0)	2.2 조 원 (▲353.9 억)	518.1 만 주 (▲250.2 만)
통화	12 개 (0)	0.7 조 원 (▼13.9 억)	116.8 만 주 (▲17.2 만)
단기자금	36 개 (0)	40.6 조 원 (▲233.9 억)	301.7 만 주 (▼3.6 만)
종합	986 개 (▼3 개)	203.4 조 원 (▲1.4 조)	7.1 억 주 (▲1.8 억)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06.13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